# 오래된 도시의 기억, 예술을 더해 문화로 피다

광주비엔날레 눈여겨볼 파빌리온
〈15〉 전일빌딩245·동구인문학당



코가네초 바자르 2026 파빌리온 전시…15일까지 전일빌딩245·동구인문학당







왼쪽부터 이향희作 '그림의 건축가', 장 한쉬안作 'Conversations in the Kitchen 시리즈', 소에지마 시노부作 '땅에 누워 있는 내 장기들'

## "예술로 지역을 바꾸자"…협업으로 일군 코가네초 도시 재생 '빛과 그림자'
## 다양한 국제교류, 문화창작공간 커뮤니티 구축…생생한 기록의 흔적 조명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관계와 기억을 쌓아간다.

오래된 공간에 축적된 삶의 흔적과 예술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의 관계를 살펴보는 전시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코가네초 바자르 2026'는 전일빌딩245와 동구인문학당 등 두 곳에서 도시와 예술, 지역 공동체의 관계를 조명한다.

이번 전시는 일본 요코하마의 코가네초 지역이 문화예술을 통해 변화해 온 과정과 아시아 각지 예술기관들이 축적해 온 교류의 역사를 소개, 도시를 완성된 공간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와 기억이 공존하는 장소로 바라보며, 예술과 공동체가 맺어 온 관계를 살펴본다.

두 전시는 도시의 공간과 기억, 예술을 매개로 형성된 관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명한다.

먼저 전일빌딩245에서 열리는 첫 번째 전시 '생명처럼 숨 쉬는 이 마을'은 코가네초를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로 바라본다.

소에지마 시노부, 장한쉬안, 부이바오짬, 하저우바오니, 김승택, 이종현, 이향희, 심성아 등 13명의 작가가 참여, 이들은 코가네초가 축적해 온 기억을 광주의 도시적 맥락과 연결하며 장소를 둘러싼 이동과 노동, 거주와 기억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코가네초는 과거 우범지역으로 알려졌던 일본 요코하마의 지역이다. 2009년 코가네초 에리어 매니지먼트 센터 설립 이후 지역 주민과 행정, 예술가들이 협력해 철도 고가 아래 빈 공간과 점포를 작업실과 갤러리로 바꾸며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재생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약 17년이 흐른 현재 부동산 자본화와 제도의 불안정성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전시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도시 재생을 단순한 성공 사례로 제시하기보다 토지 소유자와 이주민, 소상공인과 예술가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공존하는 현장으로 살펴본다.

전시 장소인 전일빌딩245 역시 도시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다. 1968년 준공된 이 건물은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일보와 전일방송 등이 입주했던 언론 활동의 중심지였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탄흔 245개가 발견된 역사적 현장으로, 현재는 당시의 흔적을 보존한 시민 문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구인문학당에서 열리는 두 번째 전시 '관계의 시간-아카이브 전시'는 코가네초와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예술기관들이 오랜 시간 이어 온 교류의 역사를 돌아본다.

전시장에는 코가네초의 국제 교류 기록과 참여 기관들의 활동 자료가 소개된다.

문서와 사진, 영상, 출판물, 참여자의 목소리 등을 통해 각 기관이 형성된 배경과 지역의 사회·문화적 조건, 예술과 공동체의 관계가 변화해 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코가네초 에리어 매니지먼트 센터를 비롯해 중국 청두의 A4 레지던시 아트센터, 대구예술발전소,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동구인문학당 등 아시아 각지의 예술기관과 공간들이 참여한다.

특히 중국 A4 레지던시 아트센터는 2011년 설립 이후 44개 이상 국가 및 지역의 창작자 359명과 협력해 왔으며, 대구예술발전소는 옛 대구연초제조창 별관 창고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한 사례다.

전시가 열리는 동구인문학당 역시 1954년 지어진 개인 주택을 보존해 2022년 시민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철거 예정이던 건물을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존했으며, 2023년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받았다. /오복기자





코가초초 지역 관리 센터



A4 레시드네시 아트 센터



대구 문화예술재단 대구 예술공장

